

신의 가족은 전체 모든 가족 중에서 최고로 고귀한 가족이다.

오늘 밥다다는 그의 고귀한 브라민 가족을 보고 있었다. 브라민 가족은 제일 높은 가족이다. 너희 모두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밥다다는 제일 먼저 너희를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 속으로 데려왔다. 바바는 너희가 고귀한 영혼이라는 지식뿐 아니라 고귀한 영혼인 너희가 자녀라는 지식도 주었다. 그는 너희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데려왔는데, 이 관계에 들어옴으로써 너희들끼리 형제자매라는 순수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밥다다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라는 관계가 있는 곳은 무엇이 되느냐? 신의 가족이다. 너희가 육신의 형태로 신의 가족에서 상속자가 되어 유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리라는 그러한 행운을 꿈이라도 꾸어본 적이 있었느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행운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행운이다. 너희는 아버지가 친히 와서 자녀인 너희들과 똑같이 육신의 형태를 취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에 대한 경험을 주리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신에게서 육신의 형태로 부양 받으리라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신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행운을 얻었다. 이처럼 너희는 그렇게 고귀한 가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녀들이 되었다. 너희는 그토록 순수한 부양으로 부양 받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미묘한 성취의 그네를 타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가족이 변했다. 나이도 변했다. 너희의 종교와 행위도 변했다. 나이가 변했기에 너희는 슬픔의 세계를 벗어나 행복의 세계로 들어갔다. 평범한 영혼이던 너희가 최고로 고귀한 존재들이 되었다. 63생 동안 흙먼지 속에서 살던 너희가 지금은 연꽃들이 되었다. 신의 가족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너희의 행운의 선을 여러 생 동안 고귀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의 가족 (파리바르)이다. “파리바르”란 어떤 공격(바르)도 초월해 (파르) 간다는 뜻이다. 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공격도 결코 올 수 없다. 너희가 신의 가족에 속하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성취의 보물창고가 영원히 가득해진다. 자연마저 신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하인이 되어 너희를 섬길 만큼 너희는 그토록 대단한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된다. 자연은 신의 가족에 속하는 너희를 고귀하게 여겨서 여러 생 동안 너희에게 부채질을 해줄 것이다. 고귀한 영혼들은 환영이나 존경의 표시로 부채질을 받는다. 자연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존경을 보일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영혼들 모두 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심지어 지금도 계속 칭송하며 숭배를 행한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신의 가족들의 신성한 활동에 대한 기념물인 바가와드 경전을 사랑으로 귀담아 들고 남들에게 들려준다. 공부의 기념물이며 신의 이 가족과 신에게서 배우는 학생의 삶에 대한 선생인 기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한 순수성으로 또 올바른 방식으로 듣고 얘기한다. 신의 가족에 대한 기념물도 역시 하늘의 태양, 달, 행운의 별들의 형태로 축하되고 숭배된다. 신의 가족에 속하는 자들은 아버지 마음의 옥좌에 앉혀지게 된다. 신의 가족에 속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러한 옥좌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신의 가족의 특질이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 모두 옥좌에 등극하게 된다. 다른 어떤 왕가에서도 자녀들이 전부 다 옥좌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신의 자녀들은 모두 권리를 가진다.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크고 고귀한, 모든 이가 다 앉을 수 있는 옥좌를 본 적이 있느냐? 신의 가족은 모든 이가 다 자아주권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다. 그는 너희 모두를 왕으로 만든다.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 모두에게 자아주권의 톨락을 찍어준다. 그는 백성이 되는 톨락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톨락을 너희들 모두에게 찍어준다. 왕국에 대한 톨락에 대한 칭송의 노래도 역시 불린다. 왕국의 톨락을 받는 날은 특별히 축하된다. 너희들 모두 왕국의 톨락을 받는 날을 축하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축하해야 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이미

경축하지 않았느냐? 킬락은 행복의 표시, 행운의 징표, 중대한 문제가 제거되었다는 표시다. 누군가 어떤 특별한 과제를 행하려고 떠날 때 그의 가족들은 그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킬락을 찍어준 뒤에 떠나보낸다. 너희 모두 킬락을 찍지 않았느냐? 너희는 킬락, 옥좌, 세계 유익의 왕관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왕관과 킬락은 이번 생에 성취한 결과를 미래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 지금은 특별한 성취를 하고 모든 성취라는 광산을 얻는 때다. 지금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미래에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 생에 대한 칭송은 공여자의 자녀들, 축복의 공여자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적어도 한 가지는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갖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 신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은 모든 성취의 삶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가족에게 도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고귀한 가문의 일부라는 것을 믿을 테지? 너희가 이번 생을 칭송하고자 한다면 여러 날, 여러 밤이 흘러갈 것이다. 신봉자들이 단지 칭송의 노래만 부르면서 얼마나 여러 낮과 밤을 보내는지 보라! 그들은 지금껏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도취감과 행복을 항상 느끼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수수께끼를 늘 기억하느냐? 너희는 기억하고 잇는 회전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을 테지? 너희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지 않았느냐?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가 된다는 것은 한정된 수많은 사물들의 회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 모두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주인들이 아니냐?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안다. 날마다 암릿 벨라에 “나는 누구인가?”를 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강력할 것이다. 앗차.

밥다다는 무한한 가족을 보고 있다. 무한한 아버지는 무한한 가족에게 무한한 사랑과 기억을 보내고 있다.

고귀한 가족에 대한 도취감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신의 가족의 중요성을 앎으로써 위대해지는 자들에게, 모든 성취의 보물창고와 왕국의 고귀한 행운을 얻은 자들에게, 신의 보석들에게, 기억과 사랑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가이아나에서 온 잉글과 안티를 만나심.**

밥다다는 봉사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나서 환영하고 있다. 너희가 매 순간마다 바바를 기억해온 정도만큼 그 보답으로 밥다다는 너희를 그의 눈에 담고서 자녀인 너희들을 환영한다. 아버지 한 분을 칭송하여 노래 부르는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도 역시 그런 자녀들의 특질에 대해 노래 부른다. 너희는 매 순간마다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자녀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아버지는 뭘 하겠느냐? 누군가 아주 좋은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들은 뭘 하느냐? 그들은 의식적인 바람과는 달리 춤을 추기 시작한다. 심지어 춤추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자녀들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밥다다는 행복해하며 춤춘다. 샹카르의 춤이 아주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봉사도 역시 그저 춤추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은 뭘 하느냐? 그것은 춤추지 않느냐? 그러니 봉사하는 것은 춤추는 것이기도 하다. 앗차.

밥다다는 항상 자녀들의 특질을 본다.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밥다다에게서 킬락을 세 개 받았다. 그것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차피 왕관과 옥좌는 갖고 있지만 세 번째의 킬락은 특별하다. 자아주권의 킬락은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받은 두 번째 킬락은 봉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태어날 때 너희가 받은 세 번째 킬락은 가족 전체와 밥다다를 사랑하며 협조하는 킬락이다.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킬락 세 개를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트리무르티 킬락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제 스스로를 항상 그렇게 특별한 봉사자라고

여기느냐? 드라마에 따라서 너희는 많은 영혼들에게 열성과 열의를 주는 도구가 되는 봉사를 받았다. 앗차.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정도만큼 아버지도 역시 너희를 기억한다. 가장 한결같고 불멸하는 기억은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다. 자녀들은 다른 과제들에도 역시 바쁘지만 아버지께는 할 일이 단지 이 일뿐이다. 암릿 벨라 때부터 그는 모든 이를 깨우는 과제를 시작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깨워야 하는지 보라,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와 외국에도 있고 모두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바바는 하루 종일 뭘 하실까요?” 라고 묻는다.

자녀들 다음에 바바는 신봉자들도 깨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고취한다. 그는 자녀들을 모두 다 돌봐야 한다. 지식이 많은, 지식이 없든, 그들 모두 여러 방식으로 협조한다. 그는 참으로 다양한 여러 유형의 자녀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누가 제일 바쁘냐? 몸이라는 굴레가 없다는 차이뿐이다. 지금 너희들도 역시 얼마동안 아버지와 대등해질 테고, 너희는 비물질 세계에서 머물 것이다. 모든 이의 이 소망도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앗차.

**밥다다가 마두반 거주자들을 만나심.**

너희는 마두반 주민들에 대한 칭송을 이미 알고 있다. 마두반에 대한 칭송은 곧 마두반 주민들에 대한 칭송이기도 하다. 매순간 육신의 형태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문간에 앉아있고, 집안에 앉아있고, 마음속에 앉아있다. 마두반의 주민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요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의 요가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요가가 이미 연결된 자들은 요가를 연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자연스럽게 한결같은 योग들이다. 기차가 엔진에 연결되어 있고 객차들 모두 레일이라는 궤도 위에 머물기에 각각 움직이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모두 마두반이라는 철로 위에 있고 엔진이 연결되어 있어서 너희는 자동적으로 계속 전진한다. “마두반의 거주자들”이란 마야의 정복자라는 뜻이다. 마야는 오려고 애쓰겠지만 (코시시), 아버지의 이끌림 (카시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항상 마야의 정복자들일 것이다. 마야의 노력은 멀리서부터 끝날 것이다. 너희 모두 봉사를 아주 잘 한다. 너희는 봉사의 귀감이다. 어디서든 누군가 봉사에 동요된다면 모든 이가 다 마두반 거주자들의 예를 든다. 너희 모두 마두반을 너희의 집이라고 여기면서 지칠 줄 모르고 사랑으로 참으로 많이 봉사하며, 모든 이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 모두 봉사에서 1등이고 100점 만점을 차지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모든 과목에 100점 만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너희들 모두 게시판에, “여러분은 건강, 부, 행복의 3가지를 다 받습니다” 라고 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과목에 이 점수를 받아야 한다. 바바에게 제일 귀를 잘 기울이는 이들은 마두반 주민들이다. 첫째로 거두는 신선한 생산물은 마두반 주민들이 먹는다. 나머지들은 각자의 차례에 한번 와서 특별한 브라마 보전을 먹는다. 너희들은 모두 그것을 매일 먹는다. 너희는 미묘한 음식과 물리적인 음식을 뜨겁고도 신선한 상태로 받는다! 앗차.

너희들은 어떤 새로운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극진한 사랑으로 너희들의 집을 장식하고 있다. 마두반의 특별함은 매번 뭔가 한두 가지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모든 이가 실질적으로 새로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매번 새로움을 보고, “저희는 이번에 마두반에서 이러저러한 성취의 특별한 파도를 봤어요” 라고 말하게 해라. 여러 가지 다른 파도가 있지 않느냐? 때로는 특별한 희열의 파도가 있고, 때로는 사랑의 파도가, 때로는 지식이라는 특질의 파도가 있다. 각자가 다만 이 파도들만 보게 해라. 누군가 바다에서 파도 속에 들어가면 그는 파도와 함께 움직여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익사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 파도들이 아주 뚜렷이 눈에 보이게 해라. 이 회의에서 너희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려느냐? 중요한 사람들이 올 테고, 언론인들이 오고 워크숍들이 열리는 등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느냐? 실질적인 딜랄라 사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나? 작은 방 또는 벽을 파서 만든 벽감들은 모두 디자인이 다르다. 각 방마다 고유한 특질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체 모든 사원들 중에서 그 사원이 독특하다. 다른 사원들에도 신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 사원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든 그것에는 특별한 디자인의 조각이 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이 딜랄라 사원에서 각자의 개별적인 상에서 특질이 보이게 해라. 그들이 누구를 보든, 각자의 특질이 다른 이들의 특질보다 더 특별하게 해서 그들이 그러한 특별한 특질을 보게 해라. 사람들이 그 사원을 지은 사람에 대해 이것은 그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들이 각자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하게 해라. 너희 모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 대수로운 일은 아니니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황금시대에 신인들은 선생들에게 명목상으로 귀 기울이되 그들은 매우 예리한 인식을 가져서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이미 들었던 것과 같은데 다만 그것이 새로 되살려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마두반의 거주자들에게도 역시 모든 것이 이미 달성되었다. 결단력 있는 생각에 대한 신호가 약간 있을 뿐, 그게 전부다! 너희들도 역시 아주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서도 역시 그 생각들 안에 “결단”을 거듭 강조해라.

**Blessing:** 그 어떤 욕망 (잇차)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를 기억하며 시간의 세 측면을 다 좋게 (앗차) 만들어라.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를 마음으로 기억하는 자녀들은 끊임없이 “와 와!”라는 노래를 부른다. 괴로움의 소리는 꿈속에조차 너희 마음에 나올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일어난 일은 뭐든 “와”(훌륭한)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든 “와”이며, 앞으로 일어날 것은 뭐든지 역시 “와”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세 측면 모두 “와 와”, 즉 전체에서 최고다.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어떠한 욕망도 있을 수 없는데, 너희가 모든 성취를 다 가졌을 때는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이다. 모든 성취로 가득해지는 것이 곧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Slogan:** 어떠한 물리력이나 윗사람 행세를 하며 휘두르는 산스카르도 나오지 않도록 너희의 산스카르를 그렇게 순수하고 차분하게 만들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